은혜를 죽이는 두 가지 암(癌)

(사사기 7:1~8)

1.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2.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이만 이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죽이는 두 가지 암(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은혜를 죽이는 두 가지 암(癌)'

우리는 대북지원을 이북의 정권을 가진 당국자들이 아닌 그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동포들을 위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북지원이 난관에 부딪히는 가장 큰 이유가, 얼마 전에도 이북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만 전 세계가 이북으로 보내는 구호물자들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군사적 힘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음식을 보내면 군인들이 다 먹어치웁니다. 물론 군인들도 먹고 살아야합니다만, 군사력 증강에 사용하므로 결국은 구호물자가 오는 길을, 스스로 막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은혜를 죽이는 암적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은혜를 많이 가지신 분이 아니라 전부 선민들에게 베푸실 은혜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경우는 많지 않고, 같은 선민을 봐도 그래 보이는데 이유는 우리의 상태가 이북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은혜를 한 번 많이 줘보셔야 감사헌금도 많이 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온 세상에 많이 알릴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의 실질적 형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미 주어진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준비되어 있는 은혜를 다 죽이는 암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암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미 은혜가 풍성한 분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고, 은혜를 죽이는 암만 제거하면 은혜 풍성한 삶은 따 놓은 당상이므로 먼저 암과의 싸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미디안의 압제 밑에서 칠 년 동안 시름하던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미디안을 쳐부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기드온이 여러 번의 확증을 통해서 이전의 세상을 완전히 교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병을 하니 이스라엘 여기저기에서 삼만 이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삼백 명만을 남기고 다 귀가조치 시키시는데 이들이 정말로 너무 많아서였을까요? 읽지 않은 12절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라고 합니다. 또한 다음 장인 8장 10절에 보면 미디안과 그 동맹 군대 수를 십삼만 오천 명으로 계산합니다. 그에 비해 삼만 이천 명은 결코 많은 수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많다'고 하신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언뜻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의 효율성을 생각할 때에 삼만 이천 명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만 명과 함께 하실 수도 있고 천명과도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필요 없다면 삼백 명도 많을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열 명만 데리고도 십삼만 오천 명을 무찌를 수는 없었을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홍해를 가르고 그 당시 가장 강한 애굽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에 홍해물이 닫히면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를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 혼자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기실 수 있었기 때문에, 숫자의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줄이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진짜 선민에게 있어서의 싸움은 십삼만 오천 명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점에서 이 전쟁은 이미 끝났고 승리는 주어진 것입니다. 선민의 진짜 싸움은 십삼만 오천 명의 미디안 동맹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점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라고 하시는데 무슨 얘깁니까? 전쟁의 승리는 눈에 보이도록 주어져 있고, 그 승리를 허락하신 당사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손에 쥐어진 승리는 내가 쟁취한 승리로 둔갑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를 거머쥔 선민이 하나님을 망각하는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민이 당신을 거슬러 스스로 전쟁을 치른 것으로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선민의 의식으로부터 하나님을 망각하면 자신들 마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전쟁은 내가 차지한 영역에서 적들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것을 말하는데, 내 의식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내 마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제거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민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전쟁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못 보는 것이고 안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앞에 두고 눈길을 주지 않고 딴청을 피운다면 이처럼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삼만 이천 명은 전쟁을 수행하기에 많은 인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영적으로 아무 탈이 없기에는 많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하나님을 잊고 거스를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숫자였기에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신 것입니다. 숫자를 줄이시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고 싶으셔도, 주실 수 없는 은혜를 죽이는 암적 요소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암적 요소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귀가조치 시키시는데, 두려워 떠는 상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인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 결코 용맹하게 전쟁을 수행할 수 없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삼만 이천 명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라고 묻는 OX 시험지를 하나 내봅니다. 그럼 거기에 X를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선민이라면 그동안 바알을 섬기고 무슨 짓을 했었더라도 시험지로 물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문제에 O를 하지 않을 선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 왜 생겼을까요?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긴다.'고 믿는데 왜 이기지 못하고 삼백 명으로 십삼만 오천 명을 무찌르는 기적 같은 승리를 삶에서 풍족하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믿음은 이러한 말의 고백을 포함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데 두려움이 은혜를 잡아먹는 암이기 때문이고, 두려움은 '믿음이 없다'는 말 한 마디로는 다 표현이 되질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다'는 상황 자체에 대한 이해를 보통 때 생각하는 방식보다는 더 넓고 크게 생각해 봐야합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두려움

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디안과의 전쟁 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두려워 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자들임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여야 우리가 미디안과 대치하는 상황과 같은 반드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현장에서 맛볼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미디안 군대를 마음이 보느라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마음이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것을 마음이 집중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이 못 보는 것뿐인데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를 들어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해보면,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거느린 수장 사울 왕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17살짜리 목동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대를 통솔하는 위치에 있었어도 눈에 보이는 골리앗에게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뚜렷이 볼 수 있으면 이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먼지 같은 우리를 겁나게 하는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외부에 있는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먼저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내일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전쟁은 삼백 명이 나팔을 불고 횃불이 든 항아리를 깨면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칼 한 번, 창 한 번 쓰지 않고 십삼만 오천 명이 자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수행하지 못할 전쟁은 아니었는데, 두려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마음으로 미디안을 보고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에서는 승리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자신들이 승리를 쟁취했다고 생각하고 기뻐하게 되고, 내 마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있고 싶어 하는 곳은 선민의 마음인데,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승리임에도 자신이 한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데 마음에서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 됩니다.

두 번째 암적 요소는 내적 필요에 충실한 것입니다. 두려워서 떠는 이만 이천 명을 귀가시키자 나머지 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다'고 하셔서 물가로 데려가 물을 마시게 하셔서 구천 칠백 명을 귀가 조치하십니다. 이들은 흐르는 물을 마시기 위해 무릎을 꿇고 얼굴을 수면에 대고서 혀로 핥거나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도 이들을 다 귀가시킵니다. 남은 자들은 무릎을 꿇지 않고 자세를 낮춰서 손에 담긴 물을 마셨다고 하는데, 줄줄 흐르는 손에 묻은 물을 핥아먹는 수준인데 이들만 남겼습니다. 이것이 뜻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비교해 보자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인데, 미디안 군대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울 왕은 골리앗에게 빼앗겼습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것은 제대로 물을 마신 것이고, 무릎을 굽히지 않고 물을 마신 삼백 명은 물을 마시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의 내적인 필요에 주의를 집중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나의 내적인 필요에 충실한 자도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을 못 봅니다. 남아있던 구천 칠백 명은 두려워 떨지 않았던 자들로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내적 필요에 대한 열망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가톨릭의 교황들이 세속 군주들의 자리까지도 좌지우지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시골 무명의 30대 학자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반항을 하자 세속군주들이 루터를 감싸고 옹호합니다. 겁을 내던 군주들이 루터를 보고 용기를 갖고 두려움을 떨치고 루터를 감싸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이 루터처럼 신앙적이고 영적인 이유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세속의 군주들이 루터를 감싼 이유는 교황의 영향권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내적인 필요에 의해서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귀족들에 의해 착취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던 농민들도 루터의 가톨릭 봉기를 보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도 내적인 필요에 대한 열망이 이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없애고 용감하게 나서게 만든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마셨던 이들은 목이 마른 자기의 필요에 전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하게 되면, 승리는 내가 쟁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많다'고 하신 것은 이들에게 승리를 주었다가는 승리가 계기가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지요.
내 필요에 대한 열망이 강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도 남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주 효율적으로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남은 삼백 명은 물을 손으로 움켜쥐고 마시는데 자기 필요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채울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기드온이 참여하는 전쟁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자기의 필요를 전혀 보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필요를 못 보는 이들을 택하셔서 끝없이 착취하는 미디안을 무찌르는 승리를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적들과 장애의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두려워합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경제침체를 보고 두려워한다면 은혜를 주실 수 없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보는 상태인데, 이러한 상태에 은혜와 승리를 주신다면 그 은혜와 승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완전히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

어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주어졌노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나의 내적인 열망이 너무 강해서 장애를 넘어가고 용기를 가지는 사람들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요즘 '꿈을 가져라, 포기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적 열망을 굳세게 쥐라'는 것인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고, 그들은 이기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를 제거하고 나의 열망과 열정으로 이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삼백 용사를 통해서 보이는 메시지는 십자가입니다.
내게 두려움을 주는 외적 대상들에 대해서 죽고, 또한 내적 열망에 대해서도 죽어야 외적 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고, 나의 육체에서 발원한 소원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소원과 열망을 먼저 보게 하셔서, 나의 외부와 내부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해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생활화로 은혜를 죽이는 두 가지 암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풍성한 은혜 안에서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은혜를 죽이는 두 가지 암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퇴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